

GIST 학-석-박 졸업생 강지승 박사, 만 27세 고려대 최연소 조교수 임용

- GIST 화학과 졸업 후 의생명공학과 석박통합과정 진학해 박사(지도교수 김태) 학위 취득... 美 하버드 의과대학 및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포닥 거쳐 올해 3월 1일자 고려대 최연소 교수 임용
- 의료 빅데이터 및 뇌신경과학 연구로 학계 주목받은 강지승 박사, SCI급 논문 70편 이상 발표하고 국제 학술대회서도 두각... "세계 의학 및 보건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"



▲ GIST 졸업생으로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조교수로 임용된 강지승 박사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의생명공학과 졸업생 강지승 박사(지도교수: 김태)가 올해 3월 1일자로 **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조교수에 임용**됐다고 밝혔다. 1997년생인 강 박사는 만 27세의 나이로 **고려대학교 역대 최연소 임용** 기록을 세웠다.

강 박사는 뇌신경과학 분야에서 김태 교수의 지도를 받아 GIST 화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(2019년 2월)한 후, 동 대학원 의생명공학과 석사·박사학위통합과정에 진학하여 4년 6개월 만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(2023년 8월). 이후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하버드 의과대학 및 메사추세츠 종합 병원*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의료 빅데이터 및 뇌신경과학 연구를 수행했다.

* 하버드 의과대학 및 메사추세츠 종합병원(Harvard Medical School/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):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은 하버드 의과대학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교육 병원으로,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병원 기반 연구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연구중심 병원이다.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14명 이상의 노벨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.

강지승 박사는 의료 빅데이터 연구 및 뇌신경과학 연구 전문가로서, 알츠하이머병 연구와 의료 빅데이터를 융합한 중개 뇌과학 연구를 수행해 왔다.

주요 연구 분야는 기초 뇌신경과학 연구부터 역학, 의료 빅데이터까지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며, **마우스 모델을 이용한 메커니즘 연구와 의료 빅데이터 연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.**

최근에는 경희대학교의료원 연동건 교수 연구팀과 협력하여, **임상 시험이 어려운 산모의 마약성 진통제 노출이 소아의 정신질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표적 시험 에뮬레이션 연구**를 진행했다.

강 박사는 세계적인 과학 저널 《BMJ(British Medical Journal, IF: 107.8)》, 《Nature》 자매지 등 SCI급 논문을 최근 **3년간 70편 이상 발표했으며, 다수의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에서 우수 발표상을 수상했다.**

강 박사는 “GIST에서 학사부터 박사 과정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진 연구 중심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받고, 해외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경험하며 교수님들의 밀착 지도를 받은 덕분에 저의 연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”고 회고했다. 또한 **“변화하는 학문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며, 세계 의학 및 보건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”**는 포부를 밝혔다.

더불어, **“과학은 실험실을 넘어 실제 의료 환경과 보건 정책에 적용될 때 더욱 큰 가치를 발휘한다”**며 **“앞으로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, 미래 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학계와 의료계가 협력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”**고 말했다.